



사별가족에 대한 새로운 발견

임승희(장로회신학대학교 사회복지전공 초빙교수, 남양주 호스피스 실무책임자)

처음에 호스피스를 알게 된 것은 약 15년 전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호스피스에서 사별가족을 돌보는 업무를 사회복지사로서 맡게 되었다. 그 당시 나에게는 호스피스라는 것과 사별가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은 매우 부족한 상태였다. 부족하지만 배우는 심정으로 사별가족을 한 가족, 한 가족 만나게 되었다. 돌보던 환자가 돌아가신 후 사별가족에게 연락하고 상담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었다. 많은 사별가족들은 자신의 슬픔을 드러내기를 꺼려하며 연락을 하면 부담감을 느끼는 가족들도 있었으나 지속적인 관심과 접촉을 통하여 그들의 내면에 다가갈 수 있는 만남이 이루어지곤 하였다. 사별가족과 깊이 만나면서 그들의 숨어 있는 눈물겨운 이야기와 사연을 함께 나눌 수 있었다. 그들의 고통과 아픔은 쉽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신뢰관계가 형성되면 그들의 마음의 한 귀퉁이에 숨겨 놓았던 이야기보따리를 풀어내는 것들을 체험할 수 있었다. 내가 만난 대부분의 분들은 정상적인 애도과정을 겪고 계셨다. 자신의 애도과정이 정상적인 것을 알려드렸을 때 안심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호스피스에서 사별가족에 대한 서비스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많은 호스피스기관에서 아직까지 사별가족서비스가 정착되지 못하는 것을 많이 발견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호스피스가 사별가족에 대한 관심과 서비스가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호스피스활동에서 사별가족서비스가 확대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별가족서비스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전문 인력의 확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많은 호스피스기관에서 사별가족서비스가 환자관련서비스와의 우선순위에서 늘 밀리는 경향이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사별가족서비스가 우리나라에 정착하기 어려운 면을 가지고 있고 호스피스가 환자중심의 서비스로 움직이다 보니 사별가족서비스는 늘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사항으로 그 중요성이 평가절하 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앞에서도 언급한 것 같이 사별가족서비스 관련 인력의 부족이라고 할 수 있다. 사별가족에 대해 끈기를 가지고 다가갈 수 있는 기술과 열정을 가진 전문 인력과 자원봉사인력이 필요하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많은 호스피스기관에서 사별가족서비스가 정착되어 가기를 바란다. 한해가 저물어 가는 지금 일년을 회고하며 일년 동안 돌보았던 환자 중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외로워하고 있을 사별가족에게 따뜻한 안부전화라도 드린다면 좋지 않을까 생각된다.